서평

계승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에 5Cs의 색을 입히다

-Cho, Young-mee Yu et al., 『Integrated Korean: Accelerated 1, 2』(University of Hawai'i Press, 2020)-

이 해 영*, 정 진**

Ⅰ. 머리말

2010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국립국어원에서 개발되면서 한국어교육에도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한 참조 기준이 제공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범용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재외동포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현장에 바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재외동포 학습자 즉, 계승어 학습자(heritage learner)는 비계승어 학습자(non-heritage learner)와는 다른 특성이 가지고 있어 교육 목표와 교육과정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해서 언어권별 재외동포용 교재

* 李海瑛,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한국어교육전공 교수, youngewha@ewha.ac.kr

** 丁眞, 홍콩대학교 인문대학 한국학 전공 전임강사, laputa5@msn.com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1.40..327

들도 개발되었으나 이들은 범용 교재를 기반으로 언어권별 특성을 일부 반영하는 방식으로의 편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언어문화권의 재외동포를 위한 맞춤형 교재로 제작된 것과는 목표 구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Integrated Korean: Accelerated 1, 2』는 대학생 한국어 계승어 학습자를 학습 대상자로 특정하고 현지의 교육과정에 철저하게 기반하여 집필된 최초의 교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책의 서문에 언급된 바와 같이, 미국의 계승어 학습자는 도구적인 동기가 아니라 통합적인 동기로, 즉 재미교포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한국어를 학습한다. 이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의 한국어 지식을 갖추고 있으나 언어 지식과 언어 기술 간의 불균형은 물론, 문어 능력과 구어 능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이해영, 2010:280-283). 또한 일반적으로 한국어 학습 속도는 빠르지만, 문법적 정확성이나 사용역의 적절성을 습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Integrated Korean: Accelerated 1, 2』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계승어 학습자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보여 흥미롭다.

Ⅱ. '한국어 표준'에 근거한 집필

『Integrated Korean: Accelerated 1, 2』는 계승어 학습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근거해 집필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12년에 미국에서 한국어 교수 학습의 표준으로서 'Standards for Korean Language Learning'(또는 'National Standards for Korean')이 개발되었는데[1] 이는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1) 이 한국어교육 표준 개발은 미국의 한국어교육자협회인 The American Association of Teachers of Korean(AATK)를 주축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존 외국어 교육 표준의

Languages(ACTFL)의 다른 외국어 교육 표준들과 같이 5Cs, 즉 communication(의사소통), cultures(문화), connections(연결), comparisons(비교), communities(언어집단)의 다섯 영역에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2015년에는 이 책의 뼈대가 된 교육과정인 'Standards-Based College Curriculum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이하 'Standards-Based Curriculum')이 개발되었다.

[표 1] 'Standards-Based Curriculum'에 따른 숙달도(Cho, et al., 2015:154 수정)

<table>
<tr><td rowspan="2">『Integrated Korean: Accelerated 1, 2』</td><td colspan="4">Standards-Based Curriculum</td></tr>
<tr><td colspan="2">계승어 학습자</td><td colspan="2">일반 학습자</td></tr>
<tr><td>권</td><td>등급</td><td>숙달도 목표</td><td>등급</td><td>숙달도 목표</td></tr>
<tr><td>-</td><td>-</td><td>-</td><td>1급</td><td>Novice High</td></tr>
<tr><td>1권</td><td>Ⅰ급</td><td>Intermediate Low (표현)</td><td>2급</td><td>Intermediate Low</td></tr>
<tr><td>2권</td><td>Ⅱ급</td><td>Intermediate Mid (표현)</td><td>3급</td><td>Intermediate High (이해)
Intermediate Mid (표현)</td></tr>
<tr><td rowspan="3">-</td><td rowspan="3">-</td><td rowspan="3">-</td><td>4급</td><td>Advanced Low (이해)
Intermediate High (표현)</td></tr>
<tr><td>5급</td><td>Advanced Mid (이해)
Advanced Low (표현)</td></tr>
<tr><td>6급</td><td>Advanced High (이해)
Advanced Mid (표현)</td></tr>
</table>

위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Standards-Based Curriculum'은 계승어 학습자의 숙달도 목표를 별도로 설정하고 있는데 일반 학습자의 숙달도와 대조해 보면 2~3급에 해당된다. 이 책은 한 학기에 60~75시간 동안 한 권의 7개 단원씩, 총 2권 14개 단원을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계승어 학습자들이 [표 1]의 목표 숙달도를 충분히 갖추게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 번역에서 벗어나 한국어교육에 맞는 맞춤형 표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유영미, 「'외국어교육표준'에서의 간 문화적인 이해: 미국의 한국어표준개발의 경우」, 『한국언어문화학』 5(1), 2009, 34~35쪽.

[표 2] 'Standards-Based Curriculum'의 주제(Ha, et al., 2015:235-272)와 『Integrated Korean: Accelerated 1, 2』의 단원명

Standards-Based Curriculum		『Integrated Korean: Accelerated 1, 2』
대주제	소주제	단원명
1. 나와 우리	1.1 인사와 소개	1권 1과 소개
	1.2 가족과 집	1권 2과 가족과 친구
	1.3 나의 일상	1권 3과 나의 하루
2. 여가생활	2.1 나의 주말	-
	2.2 외식	1권 6과 음식과 식당
	2.3 취미와 운동	1권 4과 여가 생활
3. 한국 여행 준비	3.1 대학 생활 정보	1권 5과 대학 생활
	3.2 유학 준비 과정	-
	3.3 여행 계획	2권 8과 휴가와 여행
4. 한국 생활	4.1 대중교통	2권 9과 도시 생활
	4.2 쇼핑	1권 7과 쇼핑과 유행
	4.3 건강	2권 10과 건강 관리
5. 한국문화	5.1 명절과 예절	2권 12과 명절과 전통
	5.2 한국의 지역과 역사	2권 13과 한국의 지역과 역사
	5.3 세계 속의 한국인	2권 14과 세계 속의 한국인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Standards-Based Curriculum'의 주제를 충실히 따르면서 '나'로부터 출발해서 '사회'로, '친숙한 일상'에서 '친숙하지 않은 세계'까지 주제를 확장하고 있다. 지면의 제약으로 학습 목표를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나, 이 책 각 단원의 학습 목표 역시 'Standards-Based Curriculum'의 학습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이 책의 2권 11과 '전공과 직업'은 'Standards-Based Curriculum'과 일치 또는 대응되지 않는데, 대상 학습자가 대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 주제 선정에 적절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Ⅲ. 5Cs와 교재 집필 기준

『Integrated Korean: Accelerated 1, 2』의 서문에서는 이 책이 'Standards-Based Curriculum', 즉 'Standards for Korean Language Learning'을 바탕으로 개발된 'Standards-Based College Curriculum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을 기반으로 해서 집필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Standards-Based Curriculum'은 앞의 Ⅱ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5Cs의 다섯 영역을 중심으로 한다. 5Cs와 이 책의 집필 기준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5Cs와 『Integrated Korean: Accelerated 1, 2』 집필 기준

5Cs	내용	집필 기준
Communication (의사소통)	· 대화에 참여하고 정보를 주고받으며 감정을 표현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 여러 주제에 대한 문어와 구어를 이해하고 해석한다. · 여러 주제에 대한 정보, 개념, 생각을 청자나 독자에게 표현한다.	· 더 격식적인 맥락 · 격식적인 언어 사용 · 계승어 학습자의 오류 반영
		· 모듈식 어휘 학습 · 다양한 수준의 읽기 과제 · 구조화된 과제
Connections (연결)	· 한국어를 통해서 다른 과목의 지식을 넓힌다. ·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와 관점을 인식한다.	· 더 실제적인 대화와 텍스트 · 다중 문식성
Communities (언어집단)	· 학교 안팎에서 한국어를 사용한다. · 개인적인 취미와 자기 계발을 위해 한국어를 사용함으로써 평생 학습자가 되는 것을 지향한다.	
Cultures (문화)	· 한국 문화의 관행과 관점 간의 관계를 이해한다. · 한국 문화의 산물과 관점 간의 관계를 이해한다.	· 더 문화적인 내용

Comparisons (비교)	· 한국어와 모국어의 비교를 통해 언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 한국 문화와 모국 문화의 비교를 통해 문화의 개념을 이해한다.	

이상의 집필 기준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습자 중심성과 계승어 학습자의 특성 반영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한 학습자 중심 교재는 개인화의 가능성을 넓혀 학습의 효과를 높인다(Cunningsworth, 1995:19). 재외동포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한 교재를 집필하기 위해서는 현지 전문가와 한국인 전문가의 협업이 필요한데(이정란 외, 2014:271; 이해영 외, 2018:375-376) 기존 재외동포 대상 한글학교 교재는 국내 집필진이 중심이 되어 개발되다 보니 현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해영 외, 2017:138).

그러나 이 책은 미국 현지 대학에 소속된 한국인 전문가들이 집필하여 현지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점이 엿보인다. 서두에 기술한 바와 같이 계승어 학습자들은 격식적인 언어 사용이나 정확한 문법 사용, 쓰기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2] 이 책에서 격식적 맥락, 격식적 언어 사용, 계승어 학습자의 오류 반영을 집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계승어 학습자의 한국어 습득의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책이 영어권 계승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외래어 소개에서

2) 이해영(2010)에서 TOPIK 13회 초급 시험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교포 학습자의 점수는 듣기 > 어휘/문법 > 쓰기 > 읽기 순으로 높았으며 이 중 듣기, 어휘/문법의 점수는 교포 학습자가 비교포 학습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해영, 「재미 교포 초급 학습자와 비교포 초급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비교」, 『이중언어학』 44, 2010, 275~294쪽.

도 드러난다. 외래어의 90%가 영어를 기원으로 삼는다는 정보와 함께 영어 사용자는 이해하지 못하는 '오피스텔', '샤프' 등 15개 단어를 '콩글리시(Konglish)'로 소개한다. 또한 영어 사전에 등재된 한국어 단어 '재벌', '기생' 등 15개를 제시하여 영어 사용자인 학습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재미교포 사회의 관심사에 맞추어 '텔레비전 - 떼레비'와 같이 한국어와 북한어 대조표를 제시하는 것도 흥미롭다.

이 책은 문법의 오류가 상대적으로 많은 계승어 학습자들을 고려해 가능한 한 유사 문법 항목의 변별을 포함한 명시적인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문법 사용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되었다. 가령, 6과의 문법 '-(으)니까'는 많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아/어서'와 구별하기 어려워하는데, 이 책은 '-(으)니까'의 의미를 설명하고 3과에서 학습한 '-아/어서', 5과에서 학습한 '-기 때문에'와 달리 명령과 청유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화자가 자기 의견의 근거를 제공할 때 '-아/어서', '-기 때문에'보다 더 자주 사용된다는 설명과 예문을 명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 문체 전환과 다양한 언어 사용역

이 책의 집필 방향인 격식적 맥락에서의 언어 사용은 그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비격식적 맥락에서의 언어 사용에 치우치지 않도록 언어 사용역의 균형을 지향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영어권 재외동포용 교재『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3-2 영어권』에서 '쇼핑'을 주제로 한 단원은 쇼핑몰에 가기 전 엄마와 자녀 간의 비격식적 대화, 자신의 소원에 대해 친구에게 말하기, 벼룩시장 안내문 읽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재외동포용 교재는 한글학교 학생을 위한 것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읽기 텍스트 외에 학습자가 격식적인 맥락에서의 언어 사용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와 달리『Integrated Korean: Accelerated 1, 2』를 보면 같은 '쇼핑'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되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먼저 대화는 친구 간에는 비격식체를, 옷가게 주인과 손님 간에는 격식체를 사용하여 구성되었다. '너무나도 싫은 쇼핑'이라는 제목의 내레이션은 '-아/어요'와 '-습니다'가 함께 사용된 독백문이다. 한마디로 문체 전환이 자연스럽다. '패셔니스타 대학생이 되는 법, 어렵지 않다!'라는 제목의 읽기 텍스트는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기사문과 같고, '쇼핑 경험담' 쓰기에 이은 과제 1 '올 겨울 유행 예측하기'에서 연습하는 글은 학급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하는 글이다. 그리고 마지막 과제 2 '교포 스타일? 내 스타일!'은 재미교포 학생과 한국 학생을 비교하는 그룹 토의 후 질의응답을 포함한 파워포인트 발표를 연습하는 것이다. 이 단원을 통해 학습자는 다양한 언어 사용역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3. 의사소통 활동으로서의 과제

이 책은 모듈식 어휘 학습, 다양한 수준의 읽기 과제, 구조화된 과제를 지향하며 집필되었다. 이는 이 책의 단원 구성에 반영되어 있다. 이 책의 각 단원은 다음 [그림 1]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 목표 → 도입('유용한 어휘' 포함) →
대화 → 어휘('추가 어휘' 포함) → 이해 확인 문제 → 문법 →
내레이션 → 어휘('추가 어휘' 포함) → 이해 확인 문제 → 문법 →
읽기('유용한 어휘' 포함) → 이해 확인 문제('유용한 어휘' 포함) →
쓰기('유용한 어휘' 포함) → 과제 1 → 과제 2 →
문화 → 관련 읽기('유용한 어휘' 포함) → 자기평가

[그림 1]『Integrated Korean: Accelerated 1, 2』단원 구성

이 책의 근간이 된 'Standards-Based Curriculum'은 통합적 수행 평가(Integrated Performance Assessment, IPA)에 따라 5Cs의 하나인 communication(의사소통)을 상호적(interpersonal) 의사소통, 이해적(interpretive) 의사소통, 표현적(presentational) 의사소통의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이 책에 통합적 수행 평가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상호적, 이해적, 표현적 의사소통 능력을 두루 개발하고 그 수행을 평가할 수 있도록 대화, 내레이션과 읽기, 쓰기와 과제로 단원을 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 책은 어휘 학습을 위해 지면을 따로 할애하는데 한 단원에서 대화 뒤, 독백 뒤, 총 2번에 걸쳐 목표 어휘들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어 어휘의 품사별 제시, 영어 대역어 병기에 그치지 않고, 의미 확인이나 문장 구성 등 연습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교재들과 달리 이 책에서 명시적 학습 활동을 제시한 것은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 더 나아가 이 책은 목표 어휘 외에 '추가 어휘'를 제공하고 도입, 읽기, 이해 확인 문제, 쓰기 등의 지면 하단에 '유용한 어휘'를 제공해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어휘를 선택적으로 학습하거나 어휘력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읽기 텍스트는 한 단원 내에서 '내레이션', '읽기', '관련 읽기'에 걸쳐 총 3편이 제공되어 활동으로 연결되고 있다. 예를 들어 2과는 내레이션 단계에서 '가족사진'을 설명하는 발표문을 읽고, 읽기 활동으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인 할머니에 대한 글을 읽고, '아버지 보약'이라는 동시가 관련 읽기 텍스트로 제공되어 있다. 학습자는 '가족'이라는 주제 내에서 다양한 소재와 장르의 텍스트를 다루어 특히, 구어 능력보다 문어 능력의 향상이 더 필요한 계승어 학습자에게 충분한 문어 입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어휘와 마찬가지로 학습자의 수준이나 수업 시간 등에 따라 선택적인 학습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이 각 단원에 읽기나 쓰기와 같은 언어 기술 영역과 별도로 실용적

과제를 두 개씩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요소이다. 과제 1은 '팬레터 쓰기'(1과), '부모님께 문자 드리기'(2과) 등 쓰기 또는 문어와 관련되어 있고 과제 2는 '자기소개하기'(1과), '가족 소개 영상 만들기'(2과) 등 말하기 또는 구어와 관련되어 있으며, 모든 과제는 전 단계와 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과를 예를 들어 보면, 읽기 활동으로 '룸메이트 소개' 글을 읽고, 쓰기 활동으로 '좋아하는 연예인 소개' 글을 쓴 후, 과제로 '팬레터 쓰기'를 하도록 해서 학습 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주제나 텍스트 장르에서 목표 어휘와 문법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4. 텍스트의 실제성과 다중 문식성

이 책의 또 다른 집필 기준은 더 실제적인 대화와 텍스트, 다중 문식성이다. 교재에서만 사용되는 부자연스러운 한국어가 아닌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한국어로 대화와 텍스트를 구성하고, 다양한 실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다중 문식성 개발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텍스트의 실제성이 가장 잘 구현된 부분은 '관련 읽기'이다. '관련 읽기'에는 웹툰, 동시, 신문 기사,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독백, K-pop 가사, 라디오 뉴스 등 다양한 실제 텍스트가 제시되어 있다. 다중 문식성은 '쓰기' 활동과 '과제' 부분에 잘 구현되어 있다. 1권과 2권에 걸쳐 소개문, 팬레터, 문자, 설문조사 결과 인포그래픽, 세계 지도, 이메일, 동아리 포스터, 경험담, 맛집 지도, 잡지 기사, 여행 후기, 인터넷 게시판 댓글, 소견문, 자서전 등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안내된다. 이렇게 텍스트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정보의 출처를 접함으로써 저자들이 목표로 한 한국어 다중 문식성 향상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텍스트의 다양성과 다중 문식성의 개발은 5Cs의 communication(의사소통), connections(연결), 언어집단(communities)과 관련되어 있다. 이 책은

텍스트에만 국한하지 않고 소리, 이미지 등의 다중적 처리를 통해 정보를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이에 사용된 실제성 높은 자료들은 학습자들이 교실 밖에서도 한국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그러나 실제적이고 다양한 텍스트에 비해 영상, 소리, 이미지 등 실제적인 시각 자료가 부족한 것은 아쉽다. 삽화나 사진 자료들을 곳곳에 활용하였으나 모두 흑백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가령, 13과 '한국의 지역과 역사'는 '부산의 명소 자갈치 시장'을 사진이 아닌 삽화로 소개하고 있으며 세종대왕, 이순신 동상, 거북선, 고려청자, 경복궁, 만 원권 지폐, 일월오봉도, 지역별 대표 음식 등은 사진을 사용하였으나 인물이나 물건이 실감 나게 전달되지 않는다.

이는 최근 종이 교재들에서도 QR 코드 활용 등을 통해 충분한 영상과 이미지의 제공을 도모하는 추세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다. 예산이나 책의 가격 등의 문제로 흑백으로 출판할 수밖에 없다면 학습자가 자신의 사회적 환경에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안이 있다. 사회적 구성주의에 따르면 학습자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구성해 갈 수 있다. 특히 이 책의 대상 학습자인 계승어 학습자에게는 한국인 가족이나 친지라는 언어적, 문화적 자원이 있다. 또한 지금의 대학생들은 인터넷 웹사이트, 유튜브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교재의 지시문이나 QR 코드 삽입 등의 방식으로 학습자 주변의 가용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실제적인 자료에 접근하도록 한다면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학습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5. 문화 학습자로서의 언어 학습자

문화(cultures)는 5Cs 중 하나로 특히 계승어 학습자에게는 언어만큼이나 그 의미가 크다. 이 책은 각 단원에서 문화와 관련된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나이 서열, 효도,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이스포츠, 눈치, 혼밥, 외모지상주의, 실내에서 신발 벗기, 아파트, 홈트족, 문송합니다, 연휴 기간의 해외여행, 사투리' 등 한국의 전통문화뿐 아니라 현대 사회의 현상이나 이슈들도 소개한다.

마지막 14과의 경우, 한국계 영화배우 스티븐 연(Steven Yuen)이 출연한 방송을 소개하면서, 21세기의 사회 현상으로 다문화를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인 한국어 교재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인데, 재미교포로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는 학습자들에게는 의미 있는 문화적 내용이라는 점에서 대상 학습자에 특화된 내용이다.

5Cs의 하나인 comparisons(비교)도 문화적인 내용 안에서 잘 구현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한국의 문화를 학습할 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두 문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Standards-Based Curriculum'은 '대학 생활 정보' 단원에서 한국 대학 문화와 관련된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5과 '대학 생활'은 '새내기를 위한 대학 생활 꿀팁'이라는 제목의 한국 대학 문화 관련 텍스트를 읽고 이해 확인에서 그치지 않고, 텍스트의 내용 중 미국 대학 생활과 맞지 않는 것, 자신이 새내기의 대학 생활을 위해 소개하고 싶은 꿀팁 등에 대해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언어 학습자들이 문화 학습자와 문화 비평가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음식'을 주제로 한 6과의 경우에도 한국 식당에서의 대화에 대한 이해 확인 후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미국 사람들이 자주 사 먹는 음식, 한국 친구들과 밥 먹으러 갔을 때와 미국 친구들과 밥 먹으러 갔을 때의 행동 차이 등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경리단길 한식, 우리집 식당 리뷰!'라는 제목의 읽기 텍스트에 대한 이해 확인 후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州)의 명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즉, 이 책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문화 간 비교, 자기 문화에 대한 인식을 동시에 지향하며, Seelye(1988)에서 말하는 문화 학습자로서의 언어

학습자라는 언어 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의 방향성을 지지하고 있다.

Ⅳ. 맺음말

이 책은 한국어 계승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미국에서 한국어교육의 표준으로 개발된 'Standards for Korean Language Learning'과 'Standards-Based College Curriculum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을 기반으로 집필된 최초의 교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에도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들이 존재했으나 영어권의 대학생 계승어 학습자로 대상을 특정하고, 표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집필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 책은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외국어 교육 표준의 근간이 되는 5Cs 즉, communication(의사소통), cultures(문화), connections(연결), comparisons(비교), communities(언어집단)을 구현하고자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

이 책은 학습자 중심 교재로서 계승어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자연스러운 문체 전환과 다양한 언어 사용역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실제적이고 다양한 텍스트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다중문식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교실 밖에서도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 간 비교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언어 학습자이자 문화 학습자를 지향하는 계승어 학습자들에게 유용한 학습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의 다양한 학습 자료나 자원의 적극적 수용 등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만, 부교재나 개정판 등에서 보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유영미, 「'외국어교육표준'에서의 간 문화적인 이해: 미국의 한국어표준개발의 경우」, 『한국언어문화학』 5(1), 2009, 29~51쪽.

이미혜, 김현정, 원미진, Angela Lee-Smith,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3-2 영어권』, 국립국제교육원, 2017.

이정란, 이해영, 「재외동포 아동을 위한 학습자 중심 한국어 교재 개발」, 『이중언어학』 56, 2014, 267~290쪽.

이해영, 「재미 교포 초급 학습자와 비교포 초급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비교」, 『이중언어학』 44, 2010, 275~294쪽.

이해영 외, 『한국어 교재 사용 현황 조사 및 교재 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국립국어원, 2017.

이해영, 이정란, 이민경, 씨리낫 씨리랏, 「태국 중등학교 한국어 교과서 개발」, 『이중언어학』 73, 2018, 371~393쪽.

Cho, Y. Y., et al., "Overview," *The Korean Language in America*, 19(2), 2015, pp. 153~177.

Cunningsworth, A., *Choosing Your Coursebook*, Oxford: Heinemann, 1995.

Ha, et al., "Curriculum/Curricular Framework," *The Korean Language in America*, 19(2), 2015, pp. 178~380.

Korean National Standards Task Force & American Association of Teachers of Korean(AATK), *Standards for Korean Language Learning*, ACTFL, 2012, pp. 405~456.

Seelye, H. N., *Teaching Culture: Strategies fo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National Textbook Company, 1988.